

전남도, 농업 WTO개도국 유지 정부 건의

지속된 시장 개방·농산물 수급 불안 등 농촌 존립 위해 "지위 포기 시 농업인 생존권·국민 먹거리 안전 위협"

전남도는 10일 우리나라 농업부문을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가 유지되도록 결정해줄 것을 국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 강력 건의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에 개도국 우대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난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여부는 국익을 우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건의를 통해 그동안 농업은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를 책임져 국가경제 성장의 튼튼한 밑거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과 2000년대 이후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업과 농촌, 농업인이 일방적 희생에 강요당해 왔음을 지적했다.

또 지난 25년간 지속된 시장 개방 확대

와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농가 소득이 정체되고,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 등이 지속돼 농촌 지역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영세한 농업 구조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을 볼 때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는 한국 농업의 마지노선이므로, 농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민감품목으로 보호를 받더라도 쌀(513%→393%), 마늘(360%→276%), 고추(270%→207%) 등의 관세 감축이 불

가피하다. 보조금(감축대상보조)도 낮아져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몫으로 돌아와 수밖에 없다는 게 전남도의 판단이다.

이귀동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개방 확대에 대비한 사전 대책 없는 성급한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농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농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농업의 개도국 지위는 WTO 차기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유지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WTO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첫 전기시내버스 달린다

10일부터 4개 노선 5대 운행... 연말까지 33대로 늘려

광주시는 10일부터 정규 시내버스 노선에서 첫 전기시내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광주시는 전기시내버스 도입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현대자동차를 납품사로 선정하고, 전기 충전을 위해 한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전기시내버스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전기시내버스는 첨단공영차고지를 기점으로 운행하는 첨단09번, 봉선27번, 첨단95번에 각각 1대씩 운행되고 운립 51번 노선에 2대가 운행된다. 이를 위해

전기버스 충전기 2대가 설치됐다. 이날 말 매일공영차고지의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가 완료되면 전기시내버스 5대가 추가 운행되고, 연말까지 총 33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최재호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광주시는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에 발맞춰 향후 전기시내버스를 확대 도입해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쌀값 반등세...80kg 19만1912원

태풍· 잦은 강우·일조량 부족 등 수확량 감소 원인

올해 약보합세를 보이던 쌀값이 처음으로 크게 올랐다. 지난 2일 정부가 올해 쌀수급이 수요량보다 크게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남도는 10일 "지난 5일 기준 쌀값이 80kg 기준 19만1912원으로 9월 25일(18만5520원)보다 6392원(3.4%)이 올라 약보합세에서 크게 반등했다"고

밝혔다.

연초부터 소비 부진과 농협미국중합처리장(RPC)의 재고량 과다 등으로 쌀값이 계속 하락세를 유지해 왔다. 지난 8월에는 심리적 지지선인 19만원선이 무너지고 계속 약세를 면치 못했다 10월 들어 크게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가을철 태풍 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약 3만t, 농촌진흥청도 약 5만t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특히 가을철 유난히 잦은 강우와 제18호 태풍 '미탁' 등으로 벼 피해가 늘어났다. 일조량 부족으로 등숙률이 떨어지면 쌀 부족량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 농협RPC도 지난 9월까지의 조생종벼 40kg당 5만3000원에서 5만5000원 선에 매입하던 것을 10월 들어 중만생종은 6만원선에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쌀

이 농가 소득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쌀값 반등은 농업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쌀값을 주시하면서 적정 가격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가을장마와 제 18호 태풍으로 전남도는 벼 수확량(도복) 1만7599ha, 가뭄(백수) 2166ha, 낱알 싹틔(수발아) 1476ha 등 총 3만5491ha가 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석중훈 청와대 비서관 광산경제아카데미서 강연

10일 오후 광주 광산구청에서 열린 제2차 광산경제아카데미에서 석중훈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이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 육성책과 스타트업 창업정책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日 수출제한' WTO 분쟁 첫 단추

11일 제소 한 달 만에 스위스 제네바서 한일 양자협약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벌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약이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협약을 가지기로 합의하고 10일 정해관 산업부 신동상질서협력관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이날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한국 측과 11일 제네바에서 양자 협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구체적으로 불화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적인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

다고 지적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약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피소국은 양자협약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해야 하는데 일본은 9일 만인 지난달 20일 양자협약을 수락했다. 양자협약의 수락은 WTO 피소에 따른 일상적 절차로, 일본이 과거 WTO에 피소됐을 때 양자협약에 불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규정(DSU)에 따라 양자협약의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 양자협약을 개시해야 한다.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와 장소 등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한일 양국은 양자협약의 요청 후 딱 한 달만인 오는 11일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양자협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목할 점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WTO 양자협약의 실무자(과장)급에서 이뤄지지만, 한일 만남은 국장급으로 격상됐다는 것이다. 한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 측에 국장급 만남을 요청했고 일본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꽃단장" 우치동물원 놀러 오세요

포토존·화분 설치 환경 정비

광주 우치동물원이 가을을 맞아 아름다운 꽃단장을 하고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다양한 가을꽃을 활용해 동물원 환경정비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꽃걸이 52개, 화분 200개를 동물원 곳곳에 설치하고 포토존 2곳을 마련했다.

특히 포토존은 대표적인 가을꽃인 국화와 '축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포인세

티아로 꾸며 특별한 추억과 낭만을 선사할 예정이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이번 환경 정비로 동물원 관람과 더불어 풍성한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진택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깊어가는 가을에 가족, 연인과 함께 우치동물원에서 좋은 추억을 쌓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름답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임야

바로잡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투자 자문

급매물/경매특수물건

법적으로 보장.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문흥동 동광주병원 부근 리모델링된 주택 189㎡ 집 170㎡ 1층은 공실 2억8천
- 아파트 월남동 제일파크 12층 67㎡ 조용한 생활 적합 1억2천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시설·환경 좋음 2억9천
- 농장 적합 화순군 동면 대포리 10959㎡ 전원생활에 좋음 2억8천
- 무안 문안면 영산강변 48900㎡ 펜션 14개 등 모양별원 적합 교환가 32억
-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 복숭아밭 4026㎡ 투자 적합 1억1500
- 전원주택지 함평군 월아면 예덕리 대지 235㎡ 2100만원
- 임대 계획동 이마트 부근 2층 88평 3층 86평 복층 사용 가능 2천에 230
- 강진군 도암면 계리리 땅 4021㎡ 빌라·대형 중국집 적합 은행 2억 매도·교환 5억천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선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당) 8232㎡ 주위조경중음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마동 노인간담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풍수상 사할 최고 적합 덕남동산 26951㎡ 건물 67㎡ 교환가능 가격 조정됨 8억
- 전원주택지 함평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망 좋음 1억3천

상가건물

- 유동 NC백화점 부근상업지 306㎡ 신축적합 건물에서 월 170수입 교환원 6억
- 유동 신축커뮤니티 단지 73㎡ 2층건물 30명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4억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안건 30명(공실)과 16실 월 510 매도 14억
- 북구 임동 모빌 땅 318㎡ 건평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 서구 치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공실임 은행 8억 교환가능 19억

특급물건

- 동구 산수동5거리 대로점 준주거 1249㎡ 병행·주상복합 적합 법인이전 49억
- 곡성군 곡사동면 계획관리지역 234044㎡ 다용도·법인이전 10억6천
- 강진군 성전면 상업지 등 4240㎡ 강진산단에서 1km 소형 APT 등 적합 15억
- 오양시절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중추 기능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
- 나주시 남대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적합 교환가능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천, 농성초교옆문앞

부안곰소 토지매매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265-5외 14필 (계획관리지역)

- 출포·IC·10분거리 해안탐방도로 (현 공사중)
- 곰소염전인접, 내소사 10분, 출포생태공원 10분
- 조망 : 앞 - 곰소만바다 뒤 - 내변산국립공원

매매가 평당 35만원
면적 약 2만평 분할 가능

리조트·숙박시설·근생 모든 업종 개발 가능

문의 010-5464-4448(주인)

2019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 모집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는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향우회원 자녀 중에서 애항심이 투철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특기 및 학업 성적 등 미래의 비전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 지원자격
 - 영광군민 및 재광 영광군향우회 회원 자녀 중재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2018년 10월 1일 현재 영광군이나 광주시영역에 주민등록이 된 부모를 둔 학생
 - ◆ 선발인원
 - 총 20명으로 하되, 영광군민 자녀 12명, 재광영광군향우 자녀 8명(예정)
- 선발방법 및 구비서류**
 - ◆ 선발방법
 - 영광군민의 자녀 중 영광군수가 추천한 학생(영광군 추천 양식에 의함)
 - 재광영광군향우 자녀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학생
 - ◆ 구비서류
 - ①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 추천서 1부
 - ② 공적 조서해당 분야 자료 사본 첨부
 -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④ 재학증명서 1부
 - ⑤ 성적증명서 1부
 - ⑥ 통장 사본(본인 명의)
 - ⑦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⑧ 글쓰기 작품 1점 : 수필, 자서전, 생활만화(장학생에 선발된다면 등 형식,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제출)
- 서류접수 및 선발예정**
 - ◆ 서류접수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 및 문의처 : (우 61803) 광주시영역 서구 유림로 100 (동천동 해천빌딩 7층)
 - 전화 : (062) 522-8422/사무국장 김상수 010-4622-2397 /01매일 kss2377@hanmail.net
 - ◆ 선발 일정
 - 접수 기간 : 2019년 11월 1일(금)~11월 20일(수) 17:00까지
 - 최종 선발 : 2019년 12월 초순 발표
 -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카페 및 개발 홍보)
 - 장학금 지급 및 장학증서 수여식
 - 2019년 12월, 재광영광군향우회 송년의 날(12월말) 예정
 - ◆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영광군민의 자녀는 영광군청으로 제출하고, 재광영광군향우의 자녀는 이형만영광군향우 장학회 사무국 사무실로 제출